

# 전남 의대, 신경전...목포-순천 “우리가 최적지”

### 김원이 의원 “34년 간 추진...경제성 등 목포의대 마땅” 노관규 시장 “전남 생산 70%...현장 응급외상 많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전남 의대 신설 약속에 이어 전남도가 ‘통합 의대’를 포기하고 공모를 통한 ‘단일 의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의대 설립을 추진중인 목포와 순천 지역 간 신경전이 노골화되고 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 공공성, 역사성, 당위성, 경제성을 따져본다면 전남권 의대 설립은 공모방식이 아닌 목포대 의대로 지정해 추진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목포 시민들을 1990년,

34년 전부터 의대 설립에 노력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목포대 의화전문대학원 신설, 대학병원을 공약했고, 교육부 운영 결과 비용편익대비(BC) 1.70, 생산유발 2조4335억 원, 고용유발 2만3355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목포 옥암지구에 헬리콥터로 심 주민 응급이동이 용이한 의대와 병원 설립부지 6만평이 이미 준비돼 있고, 목포 등 서남권은 섬이 많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다 조선업과 관련한 응급의료 수요도 매우 높음에도 응급의료 시스템은 부족하고

필수의료 인력은 턱없이 모자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통합 의대 신설에 동의해온 김 의원의 ‘태세 전환’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역 갈등을 우려해 목포 대신 전남권 의대라 말해 달라던 도지사가 ‘통합 의대’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힌 지 10여일 만에 입장을 바꿔 제대로 된 민소통도 없이 갑작스레 공모 추진을 발표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에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중심으로 순천 의대 추진론이 제기돼 왔다.

노 시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동부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전남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현장이 많아 응급 외상센터 등 여러 분야

의 의료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은 전남 동부권의 실질적 중심도시로, 순천대는 전남 유일의 글로벌30 대학으로 선정돼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당연히 순천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난 정치인으로서 무간지옥을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온실화초들과는 다르다”며 “전남 의대 위치문제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들과 공직자들이 순천대 의대를 고집하는 날 씹고 욕한다고 들었다. 욕해라. 난 오직 일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월22일 목포대와 합의했던 순천대도 최근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순천대 의대 단독 유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호 기자

# 20년된 시청사 ‘열린공간’ 탈바꿈

### 6월까지 공사 진행...시민 머무르고 싶은 청사로

광주시청사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청사’로 조성하기 위해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청사 외부는 시민 편의를 위한 ‘광장’ 기능이 강화된다.

시민들이 청사 잔디광장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1m 높이의 담장을 철거했 접근성을 높였다.

또 보행 동선을 가로막는 표지석, 격자형 보도, 출입제한 등의 지장물 등을 철거했으며 쉼터 등을 조성한다.

청사 1층은 홍보관, 전시관, 카페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시민이용도가 낮은 시설은 비웠으며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카페를 새로 개설한다.

캐스퍼 홍보관은 눈에 띄는 위치

로 이전하며, 시민고객맞이방은 회의실 등과일원화해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강기정 시장은 “시청사는 시민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비롯해 정치 담론, 문화 공유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기본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주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청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작품들도 시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열린청사의 시작은 우리의 발걸음, 눈길, 바람길 등을 가로막는 지장물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청사는 지난 2004년 3월 30일 현재 위치로 이전해 개청 20주년을 맞았다.

/김도기 기자



전남도-MSC, 수산물 저변확대 업무협약식  
김영록 지사가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도-MSC(해양관리협의회), 지속 가능한 수산물 저변확대 업무협약식에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전남도, 한국모태펀드 출자에 2개 분야 선정...총 520억 규모

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모태펀드 2024년 1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 결과 지역창업초기펀드와 지역혁신벤처펀드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모태펀드는 정부기관의 예산 등을 활용해 결성된 펀드로, 안정적 벤처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5년 결성돼 운영 중이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되, 투자자 결정은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혁신벤처펀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모펀드로 출자했다. 전남도가 50억 원을 출자해 향후 3년 간 총 470억 원 규모의 6개 자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창업초기펀드는 50억 원 규모로, 초기 창업기업이나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도는 2026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데이터, 바이오 등 최첨단 전략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기업 지원기관과 전남벤처(TF)를 구성해 국내 벤처투자사, 대기업, 한국벤처투자 등을 방문해 모태펀드 공동출자를 협의했다.

# “KIA · 광주FC 경기 보고 관광까지”

### 체류형 프로스포츠 관광상품 출시

광주에서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를 관람하고 관광까지 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이 출시됐다.

광주시관광공사는 프로축구 광주FC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을 위해 여행사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협약을 통해 프로스포츠 관람형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모객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

관광상품은 KIA와 광주FC의 홈경기 티켓과 교통·숙박이 연계됐다. ‘야구보러 광주가자’ 1박 2일 버스 야구여행 상품으로 1일차에

서울 용산역에서 버스로 출발해 광주에 도착한 뒤 양동시장-기아타이거즈 역사관, 스토어-야구관람으로 구성됐다.

2일차에는 동명동-국립아시아문화전당-증심사를 거쳐 서울로 복귀하는 코스이다.

기차여행 상품인 ‘야구보고 광주보고 일석이조’ 특별여행 상품도 1일차에 KTX용산역-청춘발산마을-양림동-경기관람에 이어 2일차에는 전일빌딩-동명동-무등산-국립광주박물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송정역시장을 거쳐 서울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조선주 기자

# 전남도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으로 골든타임 확보”

### 과기부 시범사업 선정...AI 활용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전남도가 과기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4년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AI앰블런스) 시범 적용 지역 공모에 선정돼 도민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은 기존 응급의료 체계의 기술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구급차에 영상을 수집하는 통신 캡과 음성을 수집하는 블루투스 마이크,

5G 태블릿을 탑재하고, 119 종합상황실과 의료기관에 응급서비스를 표출하는 장비를 도입해 구축하게 된다.

이처럼 구급차와 종합상황실·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정보를 공유하면 의료기관은 환자 도착 전 수술 준비 등 최적의 치료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환자이송 시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가는 최단경로를 자동 안내하는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2년간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도 소방본부에 인공지능 앰블런스 20대와 의료기관 6개소에 이송 중 응급환자 정보 등 응급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기기(ER-KIOSK)를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범적용 지역의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서비스 효과성 분석을 통해 서비스 적용지역 확산과 보급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상심 도 보건복지국장은 “인공지능 앰블런스가 도입되면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광주시는 지역 가전과 뿌리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4일 오후 3시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대강당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전내일 전환 지원’(기업 기초진단·컨설팅, 맞춤 지원), ‘내일기술고도화 지원’(기술이전 비용지원 및 사업화 코칭), ‘가전 내일 마케팅 지원’(제품 브랜딩·관로개척), ‘내

일전환 지원센터’(취업연계서비스·홍보),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뿌리기업 지원) 등 5개이다.

또 사업별 상담부스를 운영해 맞춤형 지원상담도 진행하며 기업도 약매키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보증금 등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광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